

감로사 성역화불사 본격 시동 총담 스님 열반 12주년

조국통일, 중생제도, 불교화합 등을 발원하며 소신공양한 총담 스님(前 태고종 승정)의 열반 12주년을 맞아, 총담 스님의 소신공양 성지 가평 감로사 성역화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9월 15일 "최근 감로사 성역불사 사업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감로사 성역불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감로사 성역불사는 총담 스님의 사리탑을 비롯해 미륵불상과 대웅전·극락보전(불교화관 아라야)·철성각·산신각·종각·감로수

각·총담기념관·선방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장엄불사로 추진된다.

지성 스님은 성역불사 모연문을 통해 "총담 스님의 소신공양 정신을 이어받아 정진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원성취, 국태민안, 평화통일, 조상천도 발원 1000일 기도 봉행과 아울러 총담 스님의 열반도량인 호명산 감로사 3000불조성, 극락보전 건립 성역불사에 대원력을 세외 불자들에게 함께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31)584-0117

조동섭 기자

스마트폰서 템플스테이 앱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어플리케이션 무료 배포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총혜)은 9월 14일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OS 및 바다OS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정

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삼성전자가 기술지원을 맡아 공동개발이 진행됐다.

어플리케이션에는 템플스테이 사찰 및 프로그램 소개,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사찰 위치확인, 템플스테이 일정 검색 등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을 직접 쳐보는 듯한 가상체험, 그리고 최근 전신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108배 하는 법' 등이 담겨져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삼성전자 갤럭시 S 등 안드로이드OS 기반의 스마트폰의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SKT T-store 홈페이지(www.tstore.co.kr), LG U+ OZ store(mobile.uplus.co.kr) 또는 삼성앱스(www.samsungapps.com)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조계종 포교원 신도증 발급 10만건 돌파

지난해 시작된 조계종의 새 신도증 발급이 10만 건을 돌파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9월 15일 10만 번째 새 신도증 등록자인 영웅권 교수(동국대 산학협력단)와 10만1번째 등록자 정미애 불자(천안 각원사)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초청해 축하했다.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새 신도증 발급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오늘 신도증을 받은 분들은 주위 불자들에게 더 많이 신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동곡학원 둔관 스님 이사장 취임



영천 은해사 주지 둔관 스님이 영천 선화여고를 운영하는 종립 동곡학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동곡학원은 9월 9일 선화여고 교정에서 초대 이사장 둔관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혜종 스님, 교구본사·말사 주지스님, 김관용 경북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차체에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에서 지역의 명문사학인 선화여고를 운영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둔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화여고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KCRP 김상곤 경기교육감 초청 강연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종교인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서 학내 종교자유 의의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9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을 주제로 김상곤 교육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김 교육감의 기초강연에 이어 류성태 前 대광고 교목실장의 보조강연 '학교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제안' 순으로 진행된다. (02)2011-1928 조동섭 기자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작은쉼터' 개소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9월 9일 다문화 북 카페 '작은쉼터'를 개소했다.

'작은쉼터'는 김천시 지역의 이주여성들이 자국의 책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등 6개국 교재·교구를 비치했다. 또, 각국의 의상 및 장신구를 전시해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국민일보 '중 범정' 표기 사과

개신교계 일간지 '국민일보'와 인터넷신문 '쿠키뉴스'가 보도에서 '중 범정'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으나, 담당기자의 사과로 마무리 됐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9월 13일 '국민일보' 등이 9월 12, 13일자에

비밀의자의 폐암을 다룬 '그 비밀은 DNA'라는 보도에서 범정 스님을 거론하며 '중 범정'이라 표기했다며 "'스님'이라는 일반 명칭까지도 쓰지 않으면 '승려'라는 단어도 있는데 굳이 수행자를 비하하는

비속어 '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보리방송모니터회의 항의가 있자 기사를 작성한 국민일보 이모 기자는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사과문을 보리방송모니터회에 보냈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이 기자의 사과는 일단 받아들여졌다"면서 "앞으로 '국민일보'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될 때에는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달마사 장학금 2000만원 전달



사천 달마사 주지 해일 스님(오른쪽)이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천 달마사주지 해일은 9월 4일 경내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광장학회장 한대식 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진주 산업대 하병호교 등 중·고생 및 대학생 29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해일 스님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나눔의 기쁨을 생각하며 장학금을 모아준 신도들에게 감사한다"면서 "학생들은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서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백제 능사 개원법회 "호국사찰 면모 새롭게"



능사 개원법회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종민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등과 백제문화단지지를 둘러보고 있다.

백제 불교문화의 백미로 꼽히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이 발견됐던 능사가 1400년 만에 복원됐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 등 대전·충남 지역 불교계로 구성된 '백제능사 삼존불 점안식 및 개원대법회 추진위원회'는 9월 11일 부여 백제문화단지 내 능사에서 '백제능사 삼존불 점안식 및 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9월 17일-10월 17일 열리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백제불교문화의 오늘에 재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무부장 영담 스님,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수덕사 주지 용산 스님과 김종민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박국진 백제문화권사업관리소장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1400년 만에 백제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가람을 세운 것은 이 땅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이라며 "능사는 찬란한 대제국 백제 문화의 부흥과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호국사찰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이에 앞서 추진위원장 원혜 스님(마곡사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백제 능사를 복원 개원하고 능사의 대도량에 삼존불을 봉안하는 것은 1400년 전 문화선진국이었던 백제의 혼과 생명을 되살리는 대작불사이다. 부처님 법에 귀의해 초일류 문화선진국을 발원했던 조상의 지극한 불심을 닮아가려는 정진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지역 어린이 2010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세계대백제전 어린이 입장권을 충남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놓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